

지상의 인간세상 굽어보는 '하늘의 제왕'



그림2: 제석천의 얼굴.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한국불화 중에 참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존상의 불화가 한 점 있다.(그림1) 작품 속의 존상은 높은 보관을 쓰고 여러 겹의 옷을 현란하게 겹쳐 입고 있다.

아름다운 보관 한가운데에는 세 개 구슬이 삼각 모양을 이룬 마니보주가 불꽃을 일으키며 빛난다. 손에 든 지물과 앉은 자세, 옷 장식 등은 기존에 흔히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양새이다. 한 눈에 어떤 부처님인지 보살님인지 짐작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 한 것은 작품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우수성이다. 화려한 장식성과 더불어 영롱한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깃들여 있다.

이 작품은 본래 교토에 있는 사찰 세이타쿠인(聖澤院) 소장품으로, 그 뛰어난 작품성으로 일본 메이지시대 때에 한 때 일본 국보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국보로 지정되었을 당시에 이 작품은 중국 원나라 것으로, 작품 이름은 마리지천(摩利支天)으로 판명되었다. 또 '국화'라는 일본 저명 미술사학자에게는 가마쿠라시대 후기의 일본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논고도 국보 지정 이후 연달아 실린바 있다.

해외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 작품들은 특히 그 작품성이 뛰어나면 뛰어난수록, 제 주소를 못 찾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우수한 작품이라 하면 무조건 중국 작품이거나 다음으로 일본 작품이라는 문화적 패권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한 사대주의가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팽배하여, 중국 것과 일본 것은 단지 인상 판단(학자들의 감식안에만 의존하는 우물 판별 방법)만으로도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면, 한국 것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참으



불화 속의 명장면 (37)

제석천도(상)

로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구구절절 논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작품성이 탁월한 걸작일 경우에는, 외국 학자들의 '어쩌서 이것이 한국 것이냐'라는 반신반의의 질문 공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던 것이 일본에서 점차적으로 한국 고려불화의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해외 타지의 여기저기에서 다른 나라의 이름을 쓰고 있던 우리 작품들이 제 주소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떠한 근거에서 한국 불화인가. 또 작품 속에 보이는 특이한 도상학적 근거들은 과연 이 존상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 주는가. 우선 자세히 작품을 살펴보고자 하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여러 겹으로 겹쳐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자세가 아니라, 마치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정면 의좌상(依座像)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왕좌 역시 보통 호사스러운 것이 아니다.

등받이 양쪽으로는 금 음모리 장식이 돌출되어 나왔다.(그림3) 벌어진 용의 입에는 붉은 구슬 장식이 즐줄이 엮여 있다. 의자 팔걸이 부분에는 금 봉황머리 장식을 했다. 보통 왕실용 의좌에는 용이나 봉황, 들 중 하나만 장식되는데 이 의자에는 용과 봉황이 모두 있다. 이렇게 과도하다시피한 화려한 장식 탓인지 이 존상은 언뜻 보기에도 매우 여성적으로 보이나, 다가가 보면 그 원만한 얼굴을 위엄스럽고도 근엄하기 짝이 없다.(그림2)

이 작품이 한국 작품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학자

뛰어난 작품성으로 日메이지시대 국보로 지정 최근 들어 일본학자가 고려시대 작품으로 논증

입어 자칫 난해하게도 보이는 존상의 옷이다. 겹겹이 걸친 천의(天衣)는 어깨 자락이 돌고기 지느러미처럼 밖으로 뻗어 있고, 또 그 밑으로는 새 깃털인지 부드러운 풀인지 층층이 그 가닥이 좌우로 뻗었다.

옷의 품이 얼마나 큰지 손이 나온 소매 자락을 보면 그 통이 무릎을 지나 발아래까지 흘러 떨어지고 있다. 붉은 치마 아랫단 밑으로는 부활살 접듯 접어 한층 볼륨감을 낸 안감 치마가 프릴 장식처럼 부풀어 나왔고 그 밑으로 발이 나온 부분은 그 자락이 들려 끝단이 반전되어 있다. 그 외 붉은 리본 매듭 자락, 영락 장식, 보석 장신구 등으로 치장을 더했다.

그런데 옷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양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지물 역시 낯설다. 둥근 타원형의 부채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물건이다. 부채는 공작 깃털과 부드러운 하얀 솜털로 장식되었고 그 부채 안에는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붉은 해와 흰 달이 눈에 띄는데 이 해와 달은 산꼭대기에 있는 궁전을 방망 돌고 있는 모습으로, 무언가 매우 신비로운 느낌을 풍긴다.

이상의 특징이외에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이 채로운 것은 존상의 자세이다. 존상은 정면을 응시하며 왕좌에 걸터앉아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연화대좌에 앉거나 혹은 서있는

들 사이에 소문이 이미 나왔었으나, 이 존상이 고려시대의 '제석천'이라고 구체적으로 논증된 것은 극히 최근 일이고 이는 한 일본 학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제석천은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천신(天神) 중 하나인데, 이 제석천은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 꼭대기에 선견성(善見城)이라는 궁전에 살고 있다. 이 제석천이 거주하는 수미산 위의 하늘 공간을 도리천(또는 33천)이라 한다. 그리고 아래로는 사천왕이 거주하는 사천왕천이 있다. 사천왕은 아래의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관찰하여, 위의 제석천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석천은 도리천에서 지상 세계를 굽어보며 사람들의 선악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리천은 인간세상 위에 있는 하늘이고, 여기를 다스리는 제석천은 하늘님인 것이다. 그래서 제석천은 하늘의 제왕 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천제(天帝), 천주(天主), 혹은 천제석(天帝釋)으로도 불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할아버지인 환인을 석제환인이라 하여 하늘의 주인인 제석천과 동일시하여 삼기도 하였다. 이 제석천의 존재를 이해하면 우리의 전통적 우주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계속)

강소연(미술사학자 · 흥익대 겸임교수)



그림1: 조선초기 제석천도 일본 교토 세이타쿠인 소장



그림3: 용머리 장식, 제석천의 왕좌.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 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主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써 밝고 환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파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당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 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 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원인이 있습니다"

*** 관세음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천도제) 전문 기도

※ 가솔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 사고 찾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합격기도 (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애가 있는 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보 무료보시

◆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고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행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가내길상 "수목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김병룡)